

韓國 近代期 內陸地方 都市住宅의 類型과 變遷에 관한 研究*

金 泰 永

(청주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1. 서 론

개항이후 서구 산업사회의 이입에 따라 이 땅에서도 서서히 근대적인 도시화 과정을 겪게 되었다. 비록 이러한 도시화 과정이 자의든 타의든 간에, 당시의 시대상황으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 근대화여로의 길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도시화 과정으로 말미암아 미개발지인 개항장에서는 근대적 단지·도시계획수법이 적용되어 새로운 근대적 도시구조를 낳았으나, 내륙지방의 도시에서는 기존의 도시구조와 첨예한 대립 양상을 띠면서 근대적 도시로의 변화를 겪게 되었던 것이다.

내륙지방에 있어서 도시구조의 변화는 그동안 이 땅의 생활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전개되어 온 주택지내의 주택건축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근대적 사회·도시구조에 적합한 생활방식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내륙지방도시의 주택은 생활방식 및 건축양식적인 면에서, 이 땅에 유입된 외인주택(外人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미치기도 하면서, 근대사회로의 이행과정 속에서 자연스러운 변화과정도 아울러 겪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내륙지방 도시에 현존하는 근대기의 전래주택 유형을 대상으로, 근대적인 상업 도시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어떠한 변천과

정을 겪어왔는가에 대하여, 공간·기능의 분화 및 규모의 증대로 인한 평면구성 원리의 변천에 초점을 두면서 읽어내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택이란 지역의 기후풍토라든가 오랜 관습적 생활방식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는 것이지만, 도시주택은 도시화에 따른 집합화에 의해 기본적 성격이 좌우되는 만큼, 이러한 유형적인 접근이 우선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내륙지방의 도시주택에 관한 연구는 기존 주택지내에서 발생하게 되는 도시화·토착화에 따른 대립문제로 말미암아 근대 도시사회의 역사적 보편성과 우리사회가 지닌 주체적 변동의 대응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본다.

2. 내륙지방의 도시주택

2-1 조사 대상지 및 범위

조사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개항장과 연계된 내륙지방 도시이면서 철도가 통과하는 교통요지인 한성부(←인천항)¹⁾·대구부(←부산

* 이 연구는 '95·96년도 한국과학재단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 * 과제번호 : 951-1205-024-2

1) 한성부는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하는 내륙지방도시에 비하여 보다 활발하고 복잡 다양한 도시화가 전개된 관계로, 이후 별도의 논문전개가 필요하다고 보아 조사대상지에서 제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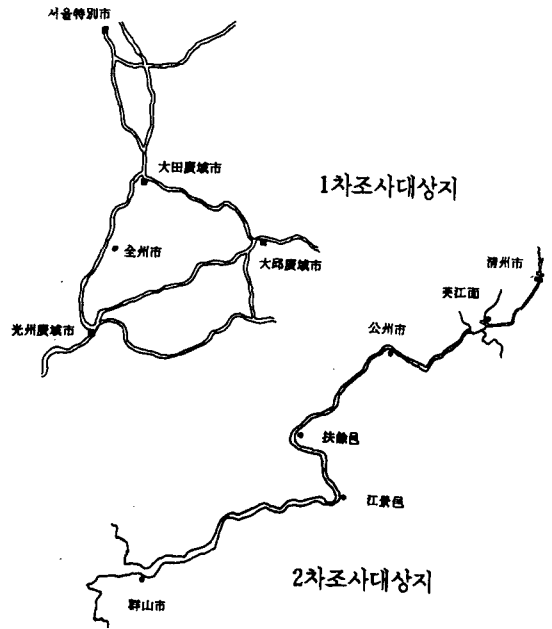
항)·광주읍(←목포항)·전주읍(←군산항)·대전읍을 1차적으로 선정하였다²⁾. 이들 도시들은 철도변에 접한 도시들로서, 내륙지방의 교통 요지이며, 근대적 도시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2차적인 대상으로는, 근대기에 걸쳐서 내륙지방의 운하(運河) 교통을 담당하였던 주변 도시들로서, 중부 내륙지방의 주요교통로인 금강변 배후도시인 군산읍³⁾·강경읍⁴⁾·부여면·공주읍·부강리⁵⁾·청주읍⁶⁾을 선정하였다.

조사의 시간적 범위로는, 개항(1876년) 이후부터 해방 이전이지만, 주로 1930년대를 전후로 하고 있다. 공간적 범위는 당시의 행정구역 범위내를 대상으로 하면서, 주택군이 형성되었던 구 도심을 중심으로 하였다. 조사의 물적 대상은 해방 이전의 근대건축중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현존하는 건물을 1차적으로 선정하고, 비록 근년에 철거된 건물이라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서 설계도(혹은 실측도), 사진 및 문헌자료를 추적할 수 있는 것은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2-2 조사 방법과 내용

조사 대상지를 내륙지방도시와 금강변 배후도시로 크게 분류한 뒤, 각 도시별로 관계자료 및 논문을 통하여 근대기 도시의 변천과정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특히 고지도와 각종 도시 관련지도, 그리고 현재의 지적도·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재산세과세대장·등기부등본 등에 대하여 기초적인 통계자료를 조사·정리하였다.

우선적으로, 일제 강점기와 현재의 지적변화를 도면을 통하여 파악한 후, 대지 및 건물규모의 변화가 없거나, 문헌상으로 확증이 되는 건물을 선정하여 실측 및 설문조사를 행하였다. 또한 대상 주택지의 구조분석과 함께, 실측도면 작성과 현장촬영을 행한 뒤, 각 주택별로 원형과 변형부분 파악에 중점을 두었다. 조사 내용으로는, 각 건물별로 거주하는 세대주 및 세입자와 건물연혁 및 현황, 건물배치 및 실의 구성, 구조 및 재료, 의장, 설비방식 등이다.



(그림1) 조사대상지(내륙지방도시와 금강변배후도시)

2-3 대표적인 주택유형

한국 근대기의 도시주택은 양식적인 면에서 전래가옥 이외에 서양식·일본식 및 기타의 외인주택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형식적으로는 순수한 주거기능만을 갖고 있는 전용주택과 상·업무 및 수장기능도 함께 갖는 복합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전용주택은 단독주택 이외에 공관, 선교사주택, 빌라, 그리고 2동 혹은 그 이상의 동일한 형식의 주택이 벽을 공유하면서

2) 近代 都市住宅 實測調査報告書Ⅳ·Ⅴ (錦江背後都市)(內陸地方都市), 淸州大學校 建築計劃研究室, 1997. 8.

3) 金泰永, 韓國開港期 外人館의 建築的 特性에 關한 研究, 서울대 博士學位 論文, 1990. 8.

4) 近代 都市住宅 實測調査 報告書 Ⅱ (鳥致院邑, 江景邑), 淸州大學校 建築計劃研究室, 1993. 3.

5) 近代 都市住宅 實測調査報告書Ⅳ·Ⅴ (錦江背後都市)(內陸地方都市), 淸州大學校 建築計劃研究室, 1997. 8.

6) 近代都市住宅 實測 調査報告書(淸州邑), 淸州大學校 建築計劃研究室 1992. 4./ 淸州近代都市住宅 研究調査報告書, 忠北大·淸州大 建築計劃研究室, 1994. 9.

(표1) 조사대상지(내륙지방도시와 금강변 배후도시)

조사지역(당시 행정구역)		조사대상구역(해방이전 건물동수)	계	조사년월
내륙지방도시	서울특별시(한성부)	(중구일대)태평로1가(88),회현동1·2가(625),필동1·2·3가(382),충무로4·5가(172),소공동(67),명동(247),<남산동1·2가/서소문동/북창동/정동>	1581	1988. 9
	대구광역시(대구부)	북성동, 서성동, 남성동, 동성동		1997. 1
	광주광역시(광주읍)	충장로1·2·3·4가, 금남로1·2·3·4가		1997. 1
	전주시(전주읍)	(완산구일대)중앙동1(6)·2(27)·3(9)·4(10)가,경원동1(33)·2(40)·3(49)가,풍남동1(33)·2(32)·3(203)가,전동1(103)·2(960)가,다가동1(95)·2(95)·3(52)·4(86)가, 고사동(39), 교동(222), 태평1동(188)	1315	1997. 1
	대전광역시(대전읍)	(동구)중동(107),정동(85), 원동(7), 인동(22), (중구)은행동(41), 선화1동(102), 대흥1(113)·2(48)·3(52)동	587	
금강변 배후도시	군산시(군산부)	중앙로1가동(110),영화동(217),장미동(82),금동(82),신영동일부(15).	510	1989
	강경읍(강경읍)	남교리(24),동홍리(2),북옥리(13),서창리(35),홍교리(88),중앙1·2리(77),염천리(20),태평리(67),대흥1·2리(57),황산1·2·3리(91),<채산·산양·채운리>	473	1992. 8
	부여읍(부여면)	정동리(1),석목리(16),구아리(73),관북리(22),쌍북리(68),구교리(97),동남리(76),저석리(2)	355	1995. 8
	공주시(공주읍)	중학동(87),중동(75),반죽동(230),봉황동(57),산성동(72),금성동(36),교동(30),웅진동(86),금학동(76)	749	1995. 8
	부강면(부강리)	부강리	87	1995. 8
	청주시(청주읍)	영동·북2·북3가동(150),문화·북1·남2가동(170),서운·남1가동(28),서문동(72),남주동(242),수동(245),탑·대성동(168)	1095	1991. 8

세워진 연립주택(長屋) 등이 있으며, 복합주택은 근대적인 상업 도시구조에 대응하여 주·상 및 수장기능의 적절한 기능적 배분에 의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개항장과 달리 내륙지방도시는 근대적 사회 구조와 도시구조로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전래 주택의 유형적 연속성을 구체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한 외래주택양식의 유입과 근대 도시 주택지의 형성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주택유형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주택유형을 “일단의 주택들이 서로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 또는 구성적 원리”⁷⁾라고 규정할 때, 근대기 내륙지방의 도시주택은 성격상 도시형 한옥, 문화주택, 복합

주택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⁸⁾ 이들 각각은 유형적으로 공통의 구성원리를 가지면서 변천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도시 인구의 과밀화 현상으로 인한 주택의 집합화 이외에, 주어진 필지의 한계내에서 용적을 극대화하려는 중층화, 그리고 근대 상업구조에 적합한 주기능과 타기능이 병존하는 복합화 경향을 지니면서 전개되었던 것이다.

1) 도시형 한옥

기존의 옛 도시구조내에는 ‘一’, ‘ㄱ’자형 전래민가형식이 도시형 주택의 한 유형으로 있어

7) 孫世寬, 都市住居 形成의 歷史, 悅話堂, 1995, 14쪽.

8) 李 勳·金泰永, 韓國 近代都市住宅의 建築要素別 變化特性에 관한 研究-淸州地域의 南門路 1街洞과 文化洞의 事例 研究를 中心으로, 大韓建築學會論文集 11卷 4號 通卷78號, 1995年 4月, 4~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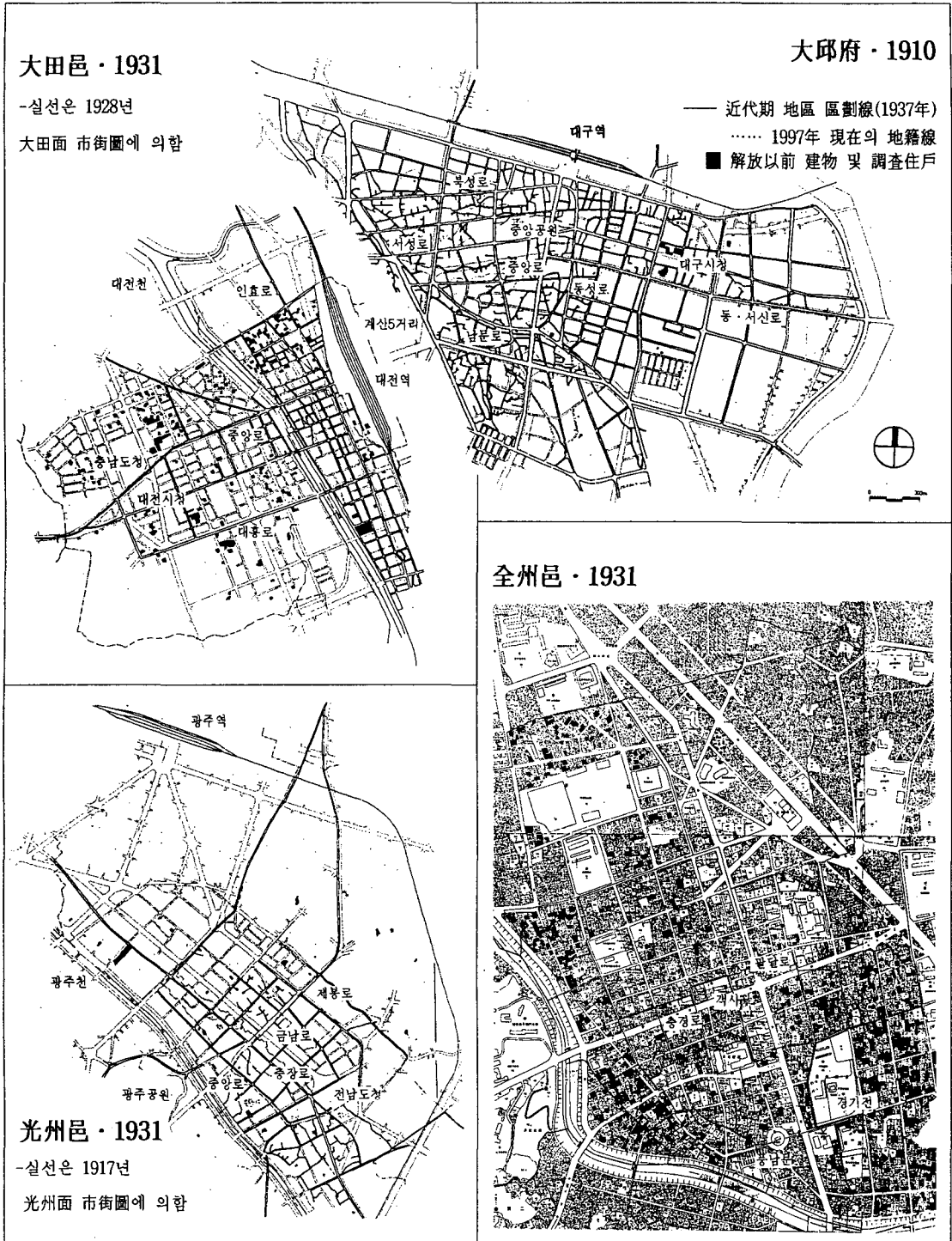


그림 2 日帝强占期와 現在의 街路網 比較 및 解放以前 住居用建物 分布圖-內陸地方都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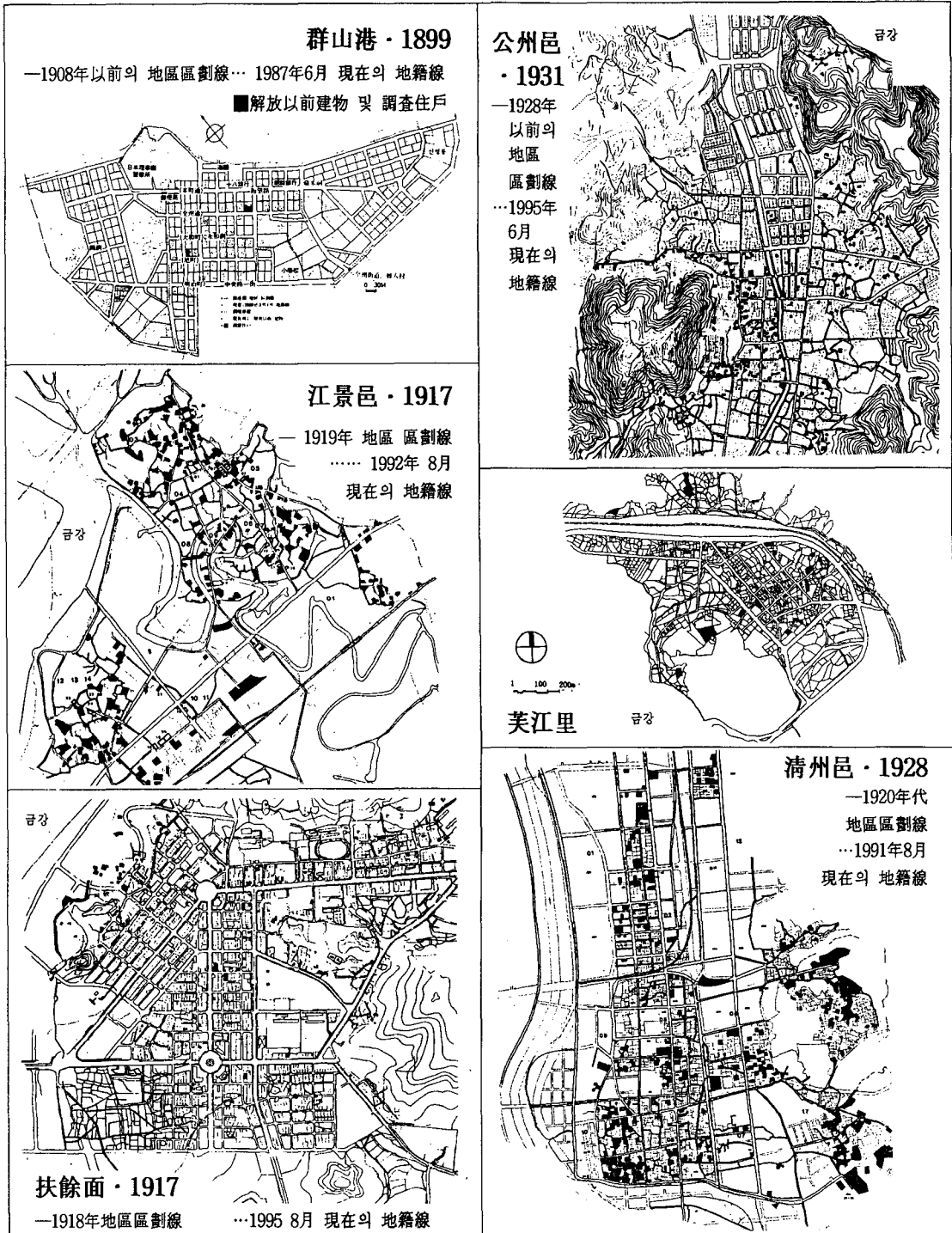


그림 3 日帝强占期와 現在의 街路網 比較 및 解放以前 住居用建物 分布圖-錦江邊 背後都市

왔으나, 근대기에 접어들면서 인구집중과 주거의 고밀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전래주택은 잦은 증축과 거주공간의 분화로, 'ㄷ'자형 혹은 'ㄱ'자형의 단층 규모로 완성되었다.

1920년대 말부터 한성부를 시작으로 주택공급업자에 의해 보급된 도시형 개량한옥은 하나의 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집합형식의 주택으로 변화하다가, 중층화로의 시도없이 1960년대 초까지 이축(移築)형태로 계속 지어졌었다.

2) 문화주택⁹⁾

거실 중심의 집중식 평면구성, 중복도, 화장실과 욕실의 내부화 등의 특색을 지닌 문화주택은 초기에 서구식 방갈로풍, 식민지풍을 띤 주택과 일본식 관사의 영향을 받아 관료와 상인계층을 중심으로 많이 세워졌으나, 난방과 위생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일반 시민계층에까지 보급되지 못하였다.

주거기능 및 규모의 확대에 말미암아 전래주택의 틀 속에서 외인주택의 이러한 특색을 도입하려는 경향이 당시의 건축가들을 중심으로 시도되었다. 대표적인 예로써, 집중식 평면으로 가는 중간단계를 보여준 조선풍 주택(1937)과 조선주택 개량시안(1936, 1941)이 있었다. 이들은 집중식 평면이외에 주거기능을 주거부분과 종속부분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문화주택에 가까운 실패치 형식을 갖춘 것으로, 소주택·영단주택·국민주택 등으로 시행되었다.

3) 복합주택

근대기 도시주택은 기능상 순수한 주거용도로서의 전용주택 이외에, 주거기능에 업무·상점·간이공장·의원 및 부속용도가 딸린 복합주택 유형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접객·집무·상행위 등의 공간이 주택에 부속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근대기 상업구조사회의 발전에 따라 형성된 가로변의 점포딸린 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점포와 주거기능이 혼용되거나, 혹은 점포에 부속실로서의 주거기능이 딸려있거나, 점포와 주택이 별도 혹은 층별로 분리되는 등 다양한 유형들로 나타났다.

3. 전래주택의 공간분화와 겹집화,

3-1 간(間)의 규모 확장과 분화

한정된 필지규모에 밀착된 전래주택은 도시인구의 집중화와 생활방식의 변천에 따라 공간이용의 극대화과 규모 확장을 동시에 추구하게 된다. 게다가 가채도구와 수장공간의 증가로 주택규모의 증대와 아울러 공간의 분화를 가져와 전래주택의 공간구성 체계를 변화시켰던 것이다.

전래주택에 있어서 전퇴간은 작은 마루 공간으로 방과 외부의 마당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후퇴간은 골방으로 이용되거나 수장기능을 수용하기도 하였다. 미서기, 혹은 여담이문으로 방과 분리되었던 이들 전·후퇴간은 내부의 복도라든가, 방의 일부로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간의 공간 분화는 건넌방과 문간방의 독립에서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안방·대청·건넌방으로 구성된 전래주택의 건넌방은 사랑채와 같은 접객기능으로 사용되거나, 뒷마루 혹은 별도의 출입구를 두어 단일 주호로 독립되기도 하였다. 또한 식생활의 간소화와 가족구성원의 핵가족화로 인하여, 'ㄱ'자형의 부엌 쪽으로 기존의 찬방을 개조하거나 별도의 문간방을 두어 단일 주호를 수용하기도 하였다.

3-2 간수(間數)의 증가

건넌방과 문간방의 분화에 의한 간수 및 주호수의 증대는 기존의 마당 공간을 유지하는 선에서 행랑채(문간채)의 증·개축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대청과 퇴간이 내부화되면서 대청은 마루방, 방, 그리고 거실 등의 실용도로 전환되었고, 퇴

9) 李勳·金泰永, 위의 논문, 4~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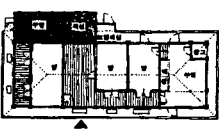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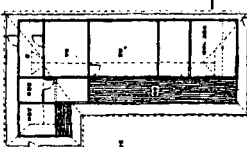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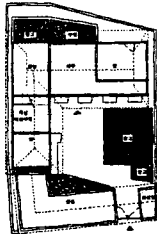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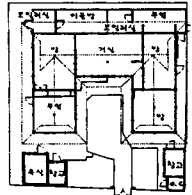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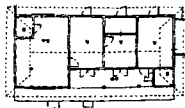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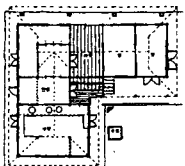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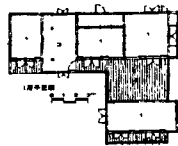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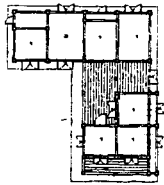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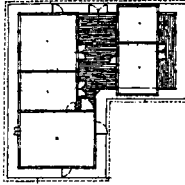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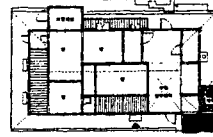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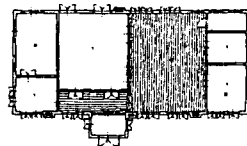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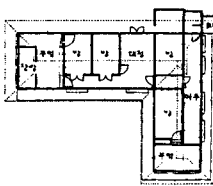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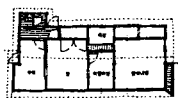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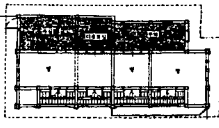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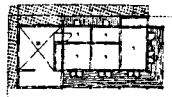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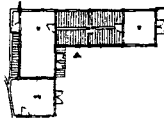
類型	內容 事 例(지역의 번호는 참고문헌에 제시된 실측조사보고서의 조사번호임)			
間의 規模 擴張 및 分化				
	공주05-반죽동347·2	공주01-반죽동19		
			대구03-서문로1가28·4	청주-문화동21·6
	부강05-부강리1027	부강01-부강리117·3	대구03-서문로1가28·4	청주-문화동21·6
傳來住宅 집 집 화				
	청주11-문화동15·31	청주16-서운동23·2	청주17-서운동28·10	공주04-반죽동337·8
현관 과 속복 도의 出現				
	청주26-수동208	청주MH05-문화동15·18	부여05-구교리132·8	
其他				
	강경24-황산2리112	청주12-문화동31·1	부강04-부강리472	

그림 4 韓國 近代期 內陸地方의 傳來住宅 類型 및 變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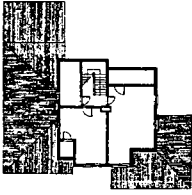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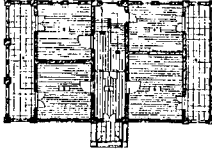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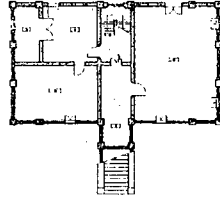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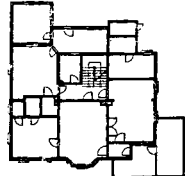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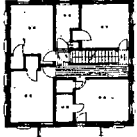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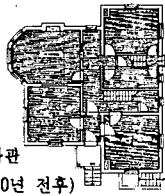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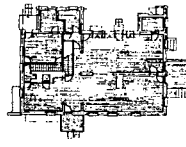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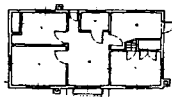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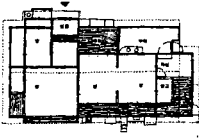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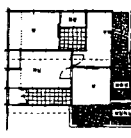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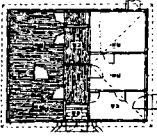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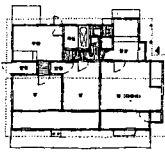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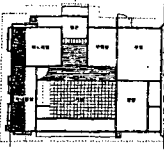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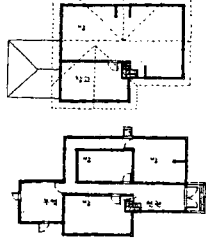
類型	內容
宣教師住宅	<p style="text-align: center;">事 例(지역의 번호는 참고문헌에 제시된 실측조사보고서의 조사번호임)</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스위치 주택(1910)</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선교사 사택(1911)</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전동성당 사계관(1914?)</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전주-전동</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대구-동산동194·211</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광주-양림동</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목사관 (1910년 전후)</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청주양관 1호(1906)</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p>대구-동산동194·211</p> <p>광주-양림동</p> <p>공주-중동309</p> <p>청주-탑동211</p> </div>
	文化住宅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p>강경26-채산리</p> <p>부여04-구교리127·1</p> <p>공주03-반죽동234·13</p> <p>대구-동인동2가50·1</p> </div>	
朝鮮住宅改良案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청주29-수동426·3</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공주07-봉황동282·2</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부여01-구아리106·2</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공주06-봉황동1·4</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청주MH04-문화15·17</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공주02-반죽동229</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공주08-중동49·2</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其他</p>  <p>청주MH01-문화동7·3</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p>청주MH04-문화15·17</p> <p>공주02-반죽동229</p> <p>공주08-중동49·2</p> <p>청주MH01-문화동7·3</p> </div>

그림 5 韓國 近代期 內陸地方의 文化住宅 類型 및 變遷

간은 각실을 연결해 주는 복도로서의 역할로 변화하였다. 주택규모 및 기능의 확대에 따른 간수의 증가는 접객기능을 담당한 건넌방의 분화에서 우선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거실화된 대청마루에 의해 동선 연결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그림4-청주11·16·17)

퇴간의 내부공간화는 곧 바로 온돌방의 '田'자형 배치가 준수된 전래의 곁집형 양통집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도시화되면서 인구증가로 인하여 주거용을 늘리기 위해 채택된 당연한 평면구성 수법으로 여겨진다. 이는 또 다시 문화주택의 영향을 받으면서 '一'자형 곁집형태로 나타났으나, 복도 없이 방과 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프라이버시가 유지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었다.(그림5 조선주택개량안)

3-3 현관과 속복도(홀)의 출현

대청과 퇴간의 내부공간화는 외부공간과 이들을 연결하는 현관의 출현을 보게 하였다. 전래주택은 외부공간에서 직접 각각의 실기능으로의 출입이 가능한 반면, 현관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출입동선이 한정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현관을 중심으로 주거기능과 접객기능을 구분하여 주는 '一'자형 주택, '一'자형의 결합에 의해 새롭게 변형된 '丁'자형과 "ㄱ"자형 주택에 있어서 속복도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그림4-청주MH05)

그러나 이러한 속복도는 채광과 환기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일본식 주택에서와 같이 현관에 수직으로 놓이게 되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답답함을 느끼게 하여 적극적으로 수용되지 못하였다.¹⁰⁾

이와 같이 공간의 분화현상과 더불어 대청·퇴간의 내부공간화, 현관 및 복도의 출현은 전래주택에 나타난 간의 구성과 조합방식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끼쳤으나, 이러한 각 실기능의 내부공간화에도 불구하고 전래주택의 구조체계와 공간구성속에 화장실과 욕실을 위치시키지 못하고 별도로 떨어뜨리거나, 기존주택의 외

벽에 부착시키는 정도에 그쳤던 것이다.

4. 문화주택의 집중식 평면과 개실화

4-1 선교사 주택과 관사

전래주택은 기존의 형식적 틀을 유지한 채, 새로운 근대적 사회 및 도시구조에 맞춰 변화해 갔지만, 서구식 문화주택이 소개되면서 기능·구조·재료 및 설비적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근대기에 세워진 서구식 주거용 건물로는, 공관·상관 및 빌라 등의 형식으로 대별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서구인들의 생활방식이 일반 대중들에게 소개되었던 것은 선교사들의 주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

선교사 주택은 지하층을 두고 있는 다층 건물로서, 실배치에 있어서 기능집약에 의한 집중식 평면 및 실의 개실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각 실들은 현관 및 계단홀, 그리고 중복도에 의해서 연결되었다. 또한 실내 화장실과 욕실, 입식 생활에 의한 가재도구, 난방기·폐치카·온돌과 같은 보온장치 등을 갖추었다.

이들 양관이 건립될 초창기에 내부는 서구식 기능을 담고 있었으나, 지붕 만큼은 합각지붕 형태에 한식 토기와로 마감되었다. 그러나 질층식 지붕구조가 생겨나면서 단순한 모임, 혹은 박공지붕 형태로 변하고, 지붕구조와 벽체가 접하는 도리구성에 있어서 점차 연결방식이 단순화되면서, 목조지붕틀과 조적벽체의 접합부는 짧게 내민 처마부분을 처마반자와 돌림대로 처리하고 있다. 그 외에 화강석 창대, 창문 인방의 결원아치쌓기, 포오치 등의 의장적 요소도 보여주고 있었다.

일본식 관사 역시, 서구식 주택과 마찬가지로 집중식 평면형을 갖추면서, 중복도 혹은 실주변의 외기에 면한 편복도로 각 실을 연결하고 있다. 대규모 관사에서는 업무와 주거기능이 명확하게 분리되지만, 철도 및 금융계통의 고급 간부용 2호 연립형 관사는 접객기능의 거

10) 李 勳·金泰永, 위의 논문, 13쪽.

실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소규모 관사에서는 이러한 업무기능이 사라지고 숙박기능만 나타나 인원을 최대한 수용하는 '田'자형 평면형식을 취하고 있다.

4-2 주거와 종속부분의 분리

전래주택의 불량한 점을 개량하고,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적합한 새로운 주택형식을 창조하기 위하여, 당시의 한국인 건축가들은 과거의 전래주택에 대한 비판, 서구주택의 흐름, 그리고 우리의 신주택 방향에 대하여 많은 논의를 하였다¹¹⁾.

이들은 주택의 기능적 측면에 있어서 각 실의 독립성 확보와 함께, 전래주택의 평면적 특징인 채와 간의 분화에 대하여 서구의 집중식 평면을 채택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은 "조선주택 건축 설계도안 현상"(1937)과 "조선주택 개량시안"(1940) 등을 발표하면서, 각 실의 기능적 분화에 따라 독립성을 가진 각 실의 주거부분과 독립성이 없는 교통용이나 일하는 장소인 종속부분¹²⁾으로 나누고, 현관의 채용이라든가 주택평면의 입체적 구성 등 순수계획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근대주택을 제안하였다.

주공간적 측면에 있어서, 각 실의 개실화를 유지하는 집중식 평면을 채택하여 남면의 주거부분과 북면의 종속부분을 기능적으로 분리하고, 변소·욕실·현관 및 새로운 실 기능의 추가 등으로 주공간구성의 변화를 시도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문화주택은 1930년대말 이후부터는 중일전쟁(1937)과 태평양전쟁(1941)으로 世帶家賃統制令(1937)과 방공건축규칙(1940)이 제정되면서, 소주택시안에서 입안된 5종의 영단주택으로 제시되어 해방이후까지 계속 지어졌다.¹³⁾

11) 金泰永, 韓國 近代期 住宅改善 運動에 관한 研究-住宅設計圖案懸賞案을 중심으로, 淸州大學校 都市地域開發研究 第 3 集 165-175쪽, 1996. 12.

12) 박길룡 「재래식 주택개선에 대하여」, 최순에 「박길룡의 생애와 작품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81. 92쪽에서 재인용.

4-3 방·대청·방의 연속3실 기능 유지

이들 서구식 문화주택은 실배치에 있어서 기능집약에 의한 집중식 평면 및 실의 개실화를 추구하고, 현관 및 실내변소의 도입을 특징으로 갖지만, 우리에게서 문화주택은 '一'자형과 'ㄱ'자형의 전래주택에서 보이는 안방·대청마루·건넌방의 구성을 기본형으로 하여 각 실의 배치가 이루어졌다.

방·대청·방의 연속 3실, 혹은 방·대청의 2실은 반드시 남면하게 되고, 북쪽 혹은 동·서쪽으로 현관을 두었으며, 새로이 내부공간화된 종속부분인 설비용 제실을 북쪽에 위치시키면서 명확하게 기능분리를 하였다.

또한 방·대청·방의 연속 3실로 이루어진 겹집형 평면구성은 서구식·일본식 주택이 취한 벽난로, 화로(고다스) 등의 개별 난방방식보다는 온돌에 의한 직접 난방방식에 더욱 적합한 형식이었다고 생각한다. 북쪽 혹은 북동쪽에 위치한 부엌에서 1실 이상의 온돌 난방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서구식 주택의 집중식 평면에 나타난 효율적인 동선에 따른 실배치 구성과, 주택의 기능을 주거부분과 종속부분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생겨난 방·대청·방의 연속 3실구성, 그리고 온돌 난방의 해결이란 점에서 근대기의 문화주택의 유형은 이후 공영주택으로 지속되어 갈 수 있었다고 본다.¹⁴⁾

5. 복합주택의 기능분화와 중층화

5-1 복합기능의 분화-혼합형¹⁵⁾

상업 및 영업 행위를 하는 복합주택은 초기에는 주기능 이외의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실

13) 李 勳·金泰永, 韓國 近代都市住宅의 建築要素別 變化特性에 관한 研究, 앞의 논문, 4~5쪽. 이러한 住宅形式은 6.25 動亂을 겪으면서 木造 簡易住宅, UNKRA 援助·AID 資金 및 政府 資金의 흙벽돌집(1952-1956)과 시멘트블록조(1957-1961), 그리고 各種 公營住宅으로 이어져 갔다.

14) 李 勳·金泰永, 위의 논문, 13쪽.

15) 金泰先·金泰永, 都市複合住宅에 있어서 「營業」과 「居住」機能의 構成에 따른 類型別 特性에 관한 研究, 淸州大學校 都市地域開發研究 第 5 集 91-101쪽, 1997. 12.

안에서 수용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형식은 복합주택의 평면구성에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구성단위로, 이들의 복합기능은 점차적으로 분화되면서 또 다른 공간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기능분화에 따른 실배치의 기본형은 길에 면한 '상점'과 부속실로서의 주거기능이 일렬로 연결된 2겹 일렬형으로, 주거기능에는 '주방', '방', 그리고 수장기능으로서의 '창고' 등이 위치하고 있다. 이들 상·주거기능은 서로 혼용되어 있지만, 각 기능이 용마루선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분리되어 나타나는 사례도 보인다.(그림6-강경09, 청주20, 부여02)

본격적으로 근대적 도시구조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도로에 접한 전면으로 상품의 제작과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점과 작업장이 위치하였고, 뒷쪽으로 생활 및 가사공간이 첨가되면서 기능적 분화가 진행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도시 복합주택은 특성상 도로에 면하여 연속하여 있어 인접 건물 양측면으로 전혀 개구부를 취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2겹 일렬형은 대지 전면으로는 좌판과 가가(假家)를, 후면쪽으로는 수장기능을 두게 되면서, 대지의 깊이방향으로 증축하게 된다.

그러나 대지의 깊이방향으로의 증축도 용이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실이 3개 이상 연속되면, 중앙부에 위치한 실의 채광 및 개방성이 어려워지게 되고, 또한 처마를 전면으로 두는 형식에서 개개 건물의 깊이 방향이 짧으면 도리 방향을 얼마든지 길게 할 수 있지만, 보 방향을 늘이면 지붕이 크게 되어 구조상 불리하기 때문이다.¹⁶⁾ 따라서 이러한 깊이 방향으로의 증축은 한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5-2 동별 분리형

상매방식의 변화(주문생산방식)와 상규모의 확대에 의하여 주·상기능은 규모를 달리하거나, 별동을 두면서 더욱 명확하게 분리된다.

이러한 예는 기존의 전래주택을 일부 개조한 것으로, 안채에 거주기능을 두고 길에 면한 행랑채와 문간채의 전면벽 만을 길 쪽으로 개방해서 점포로 사용한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그림6-청주NJ05, 대전03)

상·거주 및 수장기능이 별동으로 처리된 예로써 이들 세기능이 모두 분리된 사례는 거의 찾아 볼 수는 없으나, 보통 중정을 중심으로 하여 전면 상점, 후면 주택으로 구별되었으며, 이 두 부분은 복도를 통하여 서로 연결된다.

상거래의 증대로 말미암아 증축화되면서, 전면 상점기능이 1층 상업용, 2층 주거용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후면 1층은 작업장 및 상업용도의 부속공간과 2층은 창고 등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전면 2층이 부속실, 혹은 창고로 이용되고, 후면 주택을 별동으로 처리한 예도 흔하게 나타난다.(그림6-전주02, 대전02) 간혹 주택 규모가 늘어나면서 후면 2층이 주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5-3 층별 분리형

복합주택의 기능적 분화는 대지면적의 협소함으로 말미암아 증축화로 가게 된다. 이것은 상업적 수요가 많은 곳에서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으로, 1층은 상업용으로, 정면 입구에 난 직선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오르면서는 거주공간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1층 상점공간에 별도의 수장공간을 두지 않고 있어, 상점 후면 쪽으로 증축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물론 업종에 따라서는 1층의 후면부가 주택 용도로, 2층이 창고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들 증축형 도시복합주택은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상점들로 나뉘지기도 하고, 여러 채가 벽을 공유하면서 연속하는 형식의 공간적 분화과정으로 나타나면서, 도로에 면한 상점 전면부분이 점차적으로 폭이 좁아지는 세장형 주택의 유형으로 성장해가기도 한다.

16) 金泰永, 日本國 京都의 町家類型 研究, 建築歷史研究, 第5卷 1號 通卷9號, 1996. 6, 5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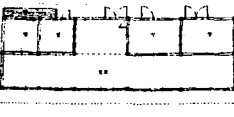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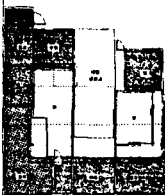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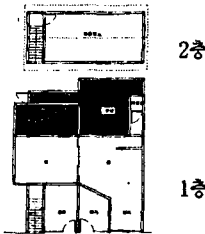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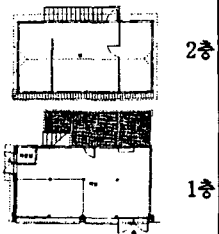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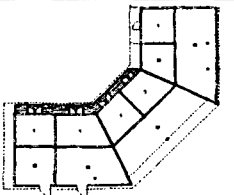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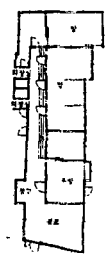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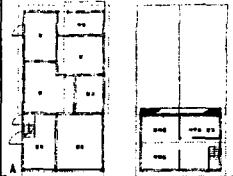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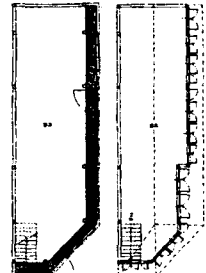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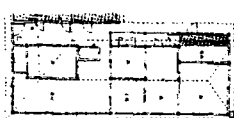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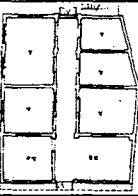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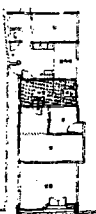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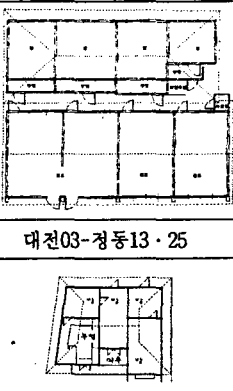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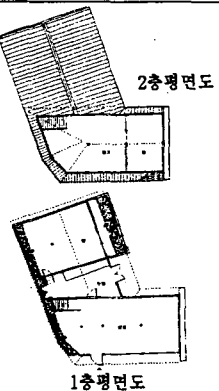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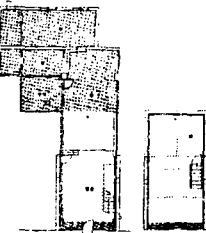
類型	內容	事 例(지역의 번호는 참고문헌에 제시된 실측조사보고서의 조사번호임)			
		單 層 型		重 層 型	
複 合 住 宅	1 棟 型				
		강경09-중앙리63	대전05-중동32·13	광주04-황금동111·1	전주01-풍남동6·2
					
		청주20-서문동96·1	강경21-대흥리52·1	대전04-중동32·12	광주05-금남로5가218·3
					
	부여02-관북리84·2	강경02-홍교리37·13	중국인 포목상점(1920)	1층평면도 2층평면도 3층평면도	
	分 棟 型				
		부여03-관북리105·3	대전03-경동13·25	전주02-다가동2가87·2	대전02-대흥동5·11
			청주NJ05-남주동97		

그림 6 韓國 近代期 內陸地方의 複合住宅 類型 및 變遷

6. 결론

이상과 같이 근대기 한국 내륙지방의 도시중에서, 교통의 요지이면서 개항장과 연계된 한성부·대구부·광주읍·전주읍·대전읍과, 금강운하의 주변 도시이면서 중부 내륙지방의 주요통로인 군산읍·강경읍·부여면·공주읍·부강리·청주읍을 대상으로, 전래주택의 근대화·도시화 과정에 나타난 한국 근대도시주택의 유형과 변천과정을 살펴본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끌어낼 수 있었다.

첫째, 기존의 전래주택은 우선적으로 단위실로서의 간의 규모확장이라든가, 간수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간의 규모확장은 전·후퇴간 및 대청의 내부공간화를 가져오게 하였고, 나아가서는 대청과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건넌방의 겹집화와, ‘一’·‘ㄱ’자형 전래주택의 조합과 구성으로 간수의 증가를 보게 된 것이다. 이러한 내부공간화와 겹집화 과정은 현관과 속복도라는 새로운 공간요소를 출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전래주택의 내부공간화와 겹집화 과정과 함께, 서구식 주택과 일본식 관사에서 보인 집중식 평면과 개실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래주택은 새로운 근대적 주택 평면형의 변천과정을 겪었다. 주거부분과 종속부분의 명확한 분리, 화장실과 욕실의 내부화, 북쪽과 동·서쪽으로의 현관 설치 등을 특징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문화주택은 온돌난방이라든가, 남면하는 방·대청·방의 연속 3실 구성은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어 이후의 도시주택의 전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셋째, 상규모의 확대와 상대방식의 변화에 의해 1실에 다기능을 수용하는 도시복합주택의 유형은 주기능 이외에 상업 및 수장기능의 분화로 말미암아 전면 상점, 후면 주택의 동별 분리형이라든가, 1층 상점, 2층 주택의 층별 분리형으로 발전한다. 또한 이들 복합주택은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상점들로 나뉘지면서, 대지 전면폭 보다 깊이 방향으로 기다란 세장

형의 모습을 띠기도 하면서, 중층형태로 변화하였다.

참고문헌

1. 孫禎睦, 日帝強占期都市計劃研究, 一志社, 1990.
 2. 金宣宰, 韓國近代都市住宅의 變遷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7.
 3. 金泰永, 日帝強占期 地方都市의 外人館 研究, 大韓建築學會 論文集, 제9권 제7호, 1993. 7.
 4. 大韓住宅公社·서울大學校 工科大學 住宅問題研究會, 全國住宅實態調査, 1962.
 5. 孫世寬, 都市住居 形成의 歷史, 說話堂 美術選書 67, 1993. 6.
 6. 孫禎睦, 日帝下의 都市住宅問題와 그 對策, 都市行政研究 1, 서울시立大學, 1986.
 7. 宋寅豪, 都市型 韓屋의 類型研究, 서울대 박사논문, 1990. 8.
 8. 金泰永, 韓國開港期 外人館의 建築의 特性에 관한 研究, 서울대 박사논문, 1990. 8.
 9. 淸州大學校 建築計劃研究室, 近代都市住宅 實測調査報告書 I(淸州邑) 1992. 4, II(鳥致院邑, 江景邑) 1993. 3, IV·V(錦江背後都市)(內陸地方都市) 1997. 8.
 10. 忠北大·淸州大 建築計劃研究室, 淸州 近代都市住宅, 研究調査報告書, 1994. 9.
 11. 李勳·金泰永, 韓國近代都市住宅의 建築要素別 變化特性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論文集, 第11卷 第4號, 1995. 4.
 12. 金美京·金泰永, 「朝鮮建築會」機關誌 “朝鮮と建築”의 住宅建築 關聯資料 研究, 淸州大 大産業科學研究 第13卷, 1995. 8.
 13. 金泰永, 日本國 京都의 町家類型 研究, 建築歷史研究, 第9卷, 1996. 10.
 14. 金泰永, 韓國近代期 住宅改善 運動에 관한 研究-住宅設計圖案懸賞案을 중심으로, 淸州大 都市地域開發研究 第3集, 1996. 12.
- (地方都市 關聯資料는 實測調査報告書 參照)

A Study on the Types and Changes of the Urban Houses in the Korean Inland during the Period 1910-1945

Kim, Tai Young

(Associate Professor, Chongju University)

ABSTRACT

In the meantime, the study of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house had been produced so many achievements in Korea, but modern house is yet to be solved.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present the basic research data in order to build up an objective study for urban house in the modern age(1910-1945).

Following to a study on the foreigner's house in grid-type settlement of Open Ports, in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modern houses of urban areas in Korean inland, and then clarify types and changes of them.

In the first year(1995~96), the modern houses of Central Inland Districts(arounding river Kungang)-Kunsan · Kanggyong · Puyo · Kongju · Pugang · Chongju were investigated by the layout of room, the construction and materials, the design and style, etc. In the second year(1996~97), the modern houses of Open Market(開市場)-Seoul · Taegu · Kwangju · Taejon · Chonju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as above.

The traditional house transformed by differentiation and addition of room(*kan*), the various types were respectively adopted for the Korean reforming and western cultural house. In the layout of room, the types of plan were gradually concentrated from the single wings of Korean traditional house. The Korean traditional house was later improv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entrance, corridor, and internal toilet/bathroom. But the Korean under-floor heating system(*ondol*) and a series of three rooms had been entirely maintained, composed of master bedroom/living room(*daechung*)/room.

And the traditional town house with shop and storage, being built closely to each other and walled up both sides, it had taken gradually the extensive characteristics in itself. By the displacement of shop/dwelling/ storage. the various types were respectively adopted for the separated, multi-storied, and complex type. The type of them was gradually changed to the narrow and linear form.

And so with the stockpile of fundamental data about modern houses in Korean urban areas, we expect these results to contribute to the knowledge of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urban house at present which are required to the understanding of transition as well as types.